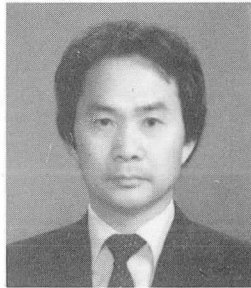


돼지유통 - 산지에서 도축장까지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여러가지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전환기적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구조변화중의 하나는 소수의 양돈농가에 의한 다두사육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97년까지는 전면 수입자유화가 예정되어 있고, 돼지고기와는 가장 긴밀한 대체관계에 있는 쇠고기는 수입할당제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대량 수입, 저렴한 가격으로 홍수방출되어 돼지고기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노임의 급속한 상승은 물론 노동인력의 축산업종 종사기피와 사료비 부담의 증가로 생산비가 늘어나 심각한 경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도 꾸준히 바뀌어 편리하고 빠르게 요



정찬길 교수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리할 수 있으며, 맛이 좋고 지방이 적으며 염분함유수준이 낮은 영양가 높은 돼지고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돈산업이 국내외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생산부문은 말할것도 없이 유통에 있어서도 전래적 돼지유통관행이 커다란 변화없이 산지로부터 도축장에 이르기까지 답습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유통효율의 증진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환

기적 국면을 극복하여 양돈산업의 안정적 도약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돼지가 산지로부터 도축장에 이르는 과정을 유통경로와 유통기구별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돈산업의 전환기적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유도하고자 한다.

2. 산지에서 도축장까지 돼지 유통실태와 문제

생산지에서 도축장까지의 돼지유통의 기구와 단계가 아직도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특히 소비지에서 생축이 유통되고 있는것은 높은 사회적 유통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돼지의 유통경로는 1) 축협이나 농협 등을 거쳐 축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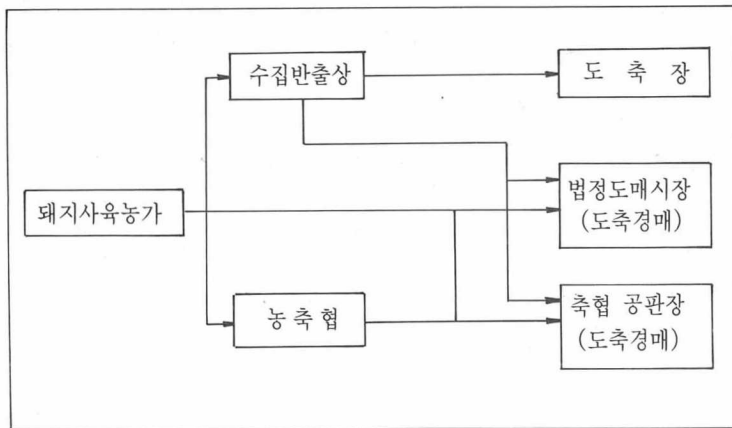
공판장이나 법정도매시장(예 : 서울의 우성이나 협진)에 출하하여 도축후 경매에 이르는 계통출하가 있고, 2) 수집반출상을 통하여 축협공판장이나 법정도매시장에 출하하여 도축후 경매에 이르는 일반출하가 있으며, 3) 생산양돈농가가 협동조합이나 수집반출상을 거치지 않고 축협공판장이나 법정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이며, 4) 수집반출상이 사육농가나 산지가축시장을 통하여 수집한 돼지를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하여 유사도매시장에 지방육을 반출하는 형태의 유통경로이다.

주요 유통경로별 출하비중을 보면 계통출하물량이 전체의 56%이며, 수집 반출상을 경유하는 물량이 44%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 물량이 법정도매시장과 축협공판장을 경유하는 물량은 43%이며, 나머지

57%는 도축장을 통하여 지방육 반입형태로 대도시나 지방에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권 유통경로를 거치는 물량보다 수집반출상에 의하여 비제도적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훨씬 많아서 돼지유통의 효율성 증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돈가격형성의 공개성 공정성 안정성의 달성이 어려워 양돈농가의 수취가격제고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생돼지와 돈육의 시계열 가격변동 추세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주기적 계절적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돈 및 돼지고기가격의 변동과정에서 소비자의 지불가격과 생산자의 수취가격간의 가격분산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가격상승시에 더욱 심하다. 따라서 높은 이윤을 포함한 유통마진이 소비와 도매단계에서 크게 발생하고



<그림1> 돼지유통-산지에서 도축장 까지

“
정책당국은 산지 식육센터,
소비지 식육포장센터와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는 소비지의
식육 도매시장과 축산물
공판장 양자간 선택을 분명히
해야한다.

”

있고 생산자의 수취가격에 부정적인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입쇠고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사육두수와 출하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과 산지 돼지가격은 하락 혹은 정체되고 있으나 정육점의 소비자가격은 유사한 비율로 내리지 않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산지돼지가격과 돼지고기의 가격은 상당한 부분이 유통의 불합리성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돼지유통은 유럽의 종합식품점의 형태도, 미국의 대형 팩커(packer)에 연결된 판매체제도 아니며 과거 일본의 유형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60년대

초반에 소비지와 산지를 구분하여 지육과 부분육의 유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지에 식육센타를, 또한 '60년대 후반에는 소비지에 포장센타를 집중적으로 설립하여 도축장과 도매시장을 분리하여 장거리 냉장수송체제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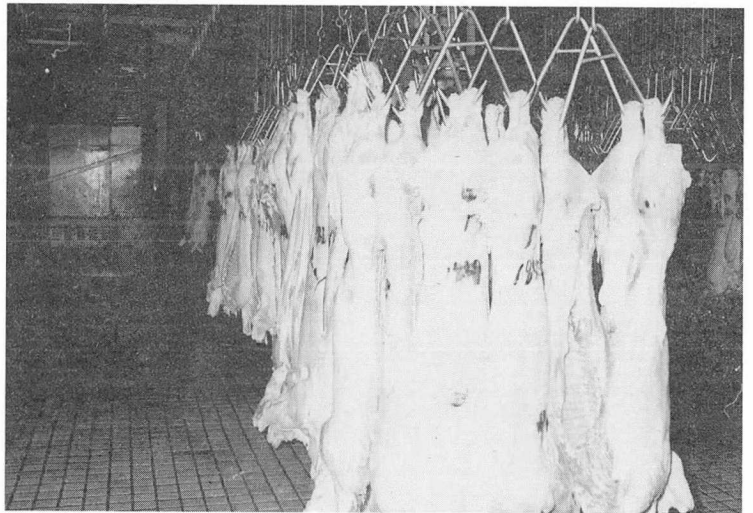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주요 생산단지나 권역을 중심으로 유통의 분화와 최소비용 유통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유통효율이 낮다. 또한 전근대적이며 전통적 거래관습이 상존하고 있어 공개적이며 공정한 가격형성이 어렵다. 특히 생산자조직의 유통점유율이 낮고 상인주도의 유통체계가 형성되어 상인유통의 견제와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결여되어 있다.

가. 생산자로부터 법정도매시장과 축산물 공판장으로의 출하

우리나라 어느 축산물도매시장이나 공판장도 도매시장이라기 보다는 도매와 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도소매시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근대적이며 위생적인 선육관리시설과 충분한 주차장 등 소요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합리적이며 위생적인 선육관리를 할 수 없다.

경매질서의 문란으로 공개적이며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장경매와 후장경매의 가격차이가 극심하여 일일중에도 출하시차에 따른 가격변화가 크다.

중매인들의 재정력 취약과 분산기능의 미약으로 소매상에 의존함에 따라 중매인 본연의 기능수행이 허약하여 도매시장 기능의 약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매인과 매매참가인의 기능과 역할이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도매시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산기능의 합리적 수행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가 도축을 겸하고 있는 법정도매시장이나 축협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대금결제에 정확하고 규격돈이 아니더라도 원하는대로 출하가

가능한 반면에 불리한 점으로는 1) 추운겨울에 도축순서 대기과정에서 압사(壓死)에 의한 사돈(死豚)이 많이 발생하고, 2) 여름에는 장기계류 때문에 사료와 물을 준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3) 도축내에서 타 출하자의 돼지와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4) 농장에서 소수의 돼지를 출하하더라도 수송비와 대기과정의 모든 비

용이 동일하게 소요되며, 5) 돼지출하시 농장에 수송차량의 도착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6) 토요일의 경우 대기순번이 조금 늦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월요일까지 대기하는 과정에서 돼지의 체중감량이 크게 발생하는 등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나. 생산자로부터 수집반출상을 통한 출하

수집상은 전업적 수집상과 생산자·일반상인이 일시적으로 하는 겸업적인 경우가 있다. 산지에 연고를 두고 있는 상인도 있지만 대부분 산지에 머물지 않고 중소도시에 점포를 갖거나 거주하면서 산지를 순회하면서 돼지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기계산하에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대량으로 반출상 또는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에 직접 출하한다.

반출상은 대부분 돼지의 생산지나 집산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산지·소비지간 유통을 담당한다. 이들은 산지수집상 또는 산지시장에서 자기계산하에 돼지를 매입하여 소비지까지 운송하는데, 지역적 가격차에 의한 장소적 이동으로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산지의 돼지의 수집상 스스로 대도시로 운송을 하거나 대도시 위탁상 또는 위탁상의 대리인에 의한 직접반입과 양돈농가의 소비지 직접 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반출상의 상 활동은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

양돈산업의 생산규모가 영세한 경영구조하에서는 다양한 유통경로와 많은 유통단계가 불가피하며, 산지에서 돼지의



수집과 소비지로 반출기능을 담당하는 산지중간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들 산지상인의 주요 기능은 시장출하를 위한 돼지의 수집과 반출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밖에도 가격형성·유통정보·금융·위험부담·선별 및 등급 등 많은 부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양돈생산농가가 수집반출상을 이용할 때는 불리한 점으로는 1) 돼지가격을 도축장이나 법정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수집반출상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개인친분으로 대금결제 지연 혹은 불가능해 지고, 2) 돼지를 차량단위로 계근할 경우 약간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3) 돼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도축장이나 법정도매시장 시세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유리한 점으로는 1) 여름이나 겨울에도 사돈이 발

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대기로 인하여 체중감량이 발생하지 않으며, 2) 돼지가 농장을 출발함과 동시에 소유권의 이전으로 책임이 없으며, 3) 적은 두수를 출하 하더라도 수송비의 부담이 없으며 타 출하자와 돼지가 바뀔 염려가 없으며, 4) 전화통화만으로 돼지의 출하가 가능하며, 5) 단골거래로 높은 신뢰성의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3. 돼지유통의 개선대안

돼지유통체계를 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하여 생산지를 중심으로한 도축·포장·가공의 근대적인 도축프란트(slaughtering plant)의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생산된 선육·포장육·가공육은 수요에 따라서 소비지의 도매시장에 지육으로 출하하거나 수퍼나

대량판매점에 포장육 혹은 가공육으로 콜드체인에 의하여 직송되는 유통체계가 선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유통체제는 개별기업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 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들에 의하여 수직적-수평적 계열화와 계약생산체제가 구축되어 50% 내외의 유통점유율이 이들에 의하여 주관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주어 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생산자가 생산이후의 유통과 가격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생산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수취하여 소득증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축장은 위생적 도축과 선육관리를 할 수 있는 근대적 소요시설을 갖추도록 금융지원과 정책적 지도 및 행정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계류시간의 최소화, 신속도축, 계근의 신뢰, 출하질서의 확립, 위생적 부산물처리 등을 위한 도축장의 정화가 시급하며 감독지도체제가 확립강화되어야 한다.

축산물도매시장도 일본이나 대만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건

설되고 있는 공영종합도매시장체제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지육상장 도매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전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대적이며 위생적인 시설은 물론 비축시설, 수송시설 및 장비, 또한 육가공 포장제조시설까지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축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공판장을 건설육성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최근에 산지에 개설되고 있는 식육센터의 육성이다. 왜냐하면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을 분리함은 물론 부분육의 유통을 증대하기 위해서 산지에 식육센터를 개설 혹은 대폭 증설하고 동시에 산지의 지육 및 부분육을 가공하는 식육포장센타를 소비지에 많이 개설하면 소비지의 식육도매시장과 축산물공판장에 출하물량이 대량으로 감소하게되어 그 기능과 역할이 약화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장기발전계획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지의 식육센터와 소비지의 식육포장센타와 함께 식육 도매시장과 축산물공판장을 동시에 육성하려는 정책보다는 양자간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의 지정도매회사와 중매인 매참인간의 기능과 역

할이 재확립되어 수집과 분산 기능이 분리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중매인은 거래규모가 적정화되어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양돈생산농가들이 수집반출상에게 돼지를 판매하는 것 보다는 농축협을 통한 계통출하와 축협공판장과 법정도매시장에게 위탁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가 양돈생산농가에 돌아가는 제도적 유통체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거래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경매제도는 만능이 아니므로, 그 단점들을 보완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 누구나 공감이가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거래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圖影

